

주민과 더 가까이...전남경찰 변화 바람

치매노인 감지기 보급 확대
순찰·헬기 단속 섬 치안 강화
생활 밀착 맞춤형 치안활동
직원 공감형 인사 시스템 도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 참여형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에게 공감받는 인사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기인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4만7000여명에 이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100여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최근 전남도와 한국전력 등에 협조를 요청해 3800여대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 초까지 총 5000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관호 전남청장은 지난 8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치매노인 실종사건이 많은 내부보고를 접하고, 모든 치매노인에게 배

회감지기를 보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에 맞는 어르신(노인) 맞춤형 치안 대책과 매뉴얼 등을 만들어 타 지역 경찰도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섬이 많은 지역성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섬 조성을 위한 도서치안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전남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143개 섬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순찰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미 107개(75%)섬을 1회 이상 순찰했다. 경찰은 또 유인도서 내 이장과 어촌계장 등 200여명을 '도서지킴이'로 선발해 주 1회 이상 전화 등을 통해 섬내 치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섬 지역의 고질적 범죄인 '염전 노예'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

터 12명으로 구성된 '도서전담 합동기술 순찰팀'을 발족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해 주 1회 섬 지역 치안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최 청장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획기적인 회의문화 개선도 눈길을 끈다. 최 청장은 매주 수요일이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강의를 듣는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30분)'를 마련, 직원들의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 중이다.

그동안 일부 직원의 불만을 사기도 했던 인사시스템 역시 개선작업이 활발하다. 최 청장은 취임 후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간담회 등을 열고 직원의견을 경청한 뒤, 올 하반기 경정·경감 인사 대상자 중 86%를 1순위 희망자에 우선 배치하는 등 직원 중심형 인사를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국화 활짝 18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힐링농업 체험학습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로잔나 등 국화꽃 3만본이 활짝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색양배추와 비올라 등이 민개한 겨울꽃 시설후유를 오는 25일까지 개방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고교생들 "소년법 개정...처벌 강화해야" 소논문대회 동아여고 학생들 주장

광주 학생들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 논문을 발표했다.
'18세 미만 소년에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현행 소년법(제59조)에서, 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 (현행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을 처할 경우

2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이 논문에서 밝힌 소년법 개정안이다.
광주동아여고 문승주·박하현·장서영 학생은 지난 17일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8 광주 고교생 소논문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4용지 22장 분량의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논문에서 학생들은 "최근 발생

한 청소년 잔혹범죄의 경우 가해 청소년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 학생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학생들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를 분석해 가해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 않은 잔혹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 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둔 현행 소년

법 탓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지 못했고, 이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청소년 165명, 성인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청소년이라고 계속 보호만 해줘선 안 된다'는 여론과 국민 주권 원리를 함께 제시하며 국회를 향해 소년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1 달뜨기 15:19
해질 17:25 달짐 02:41

겨울 초입 큰 일교차

낮밤 일교차 크고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다.

광주	맑음	4/14	보성	맑음	2/14
목포	구름 많음	6/14	순천	맑음	5/16
여수	맑음	8/15	영광	맑음	2/14
나주	맑음	1/15	진도	구름 많음	4/14
완도	맑음	7/15	전주	맑음	3/14
구례	맑음	2/14	군산	구름 많음	4/13
강진	맑음	4/15	남원	맑음	1/13
해남	맑음	2/14	흑산도	구름 많음	10/15
장성	맑음	2/1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35
	16:48	23:27
여수	00:21	06:29
	12:21	18:45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	☀	☀	☀	☀	☀	☀
3/14	3/12	2/11	2/12	3/12	2/12	3/13

광주·전남 시민단체 오늘 '성빈여사' 규탄 기자회견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며 고 아소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YWCA 산하 성빈여사(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YWCA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전남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아 YWCA 산하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19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열 예정이다.
단체들은 "YWCA 산하 보육시설에서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무시(광주일보 2018년 11월 12일자 6면)하고, 같은 시설에서 2007년·2010년·2013년·2016년 인권문제, 아동 학대 문제, 회계비리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 YWCA 이사회가 자체적인 혁신을 비롯한 원장 해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민·산·학·연 네트워크 '정책 공간 포용혁신' 창립

광주·전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혁신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정책 공간 포용혁신'은 최근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류한호 광주대 교수가 상임대표, 김수관 조선대 교수와 박상일 지방분권 전국연대 대표가 공동대표로 선

출됐다. 포용혁신에는 민·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지역 혁신 활동가 등이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에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을 제시하게 된다.
류한호 교수는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포용적인 혁신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제16회

보성차밭 이 축제

*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왕국

2018. 12. 14 ~ 2019. 1. 13.

18:00~22:00 한국차문화공원 일원